

‘도민주권 · 체감성장으로 전북 대도약’

이원택 도지사, 민선 9기 첫 간부회의 열고 새만금 퍼지컬AI 밸리 구축 전략 구체화 · 공공기관 이전 대응 등 주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도민이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도정 실현을 위해 핵심 정책의 추진방향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퍼지컬AI 산업 선도기반 구축 △새만금과 연계한 미래 성장전략 △포스트 새만금 메가프로젝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도·시군 협력체계 혁신 △햇빛소독마를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이원택 도지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 최근 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서 전북이 제외된 상황을 언급하며 “새만금을 대한민국 퍼지컬AI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만금 퍼지컬AI 밸리 구축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대차 투자와 AI·로봇·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연계한 국가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메가특구 지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부처 협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새만금 개발 효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포스트 새만금 메가프로젝트’ 발굴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새만금에만 성장동력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14개 시·군의 강점을 연결하는 국가 단위 메가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기획해 국가계획과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말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변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전북 미래산업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도민이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도정 실현을 위해 핵심 정책의 추진방향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과 연계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전략을 고도화하고 정부 로드맵 수립 단계부터 도와 정치권, 시군, 유관기관이 함께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 혁신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도와 시군이 각자도생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한정한 재원으로 시너지를 낼 수 없다”며,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정책 워크숍을 조속히 개최해 공약과 핵심 사업을 상호 확인·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공통추진 사업과 중복사업은 과감히 통합·연계하고 개별 시군 단위로 쪼개진 관광 등의 사업은 대표 자원을 엮은 광역 프로젝트로 전환하여 규모의 경제와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한정된 자원의 전략적 활용방안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가 진행 중인 ‘햇빛소독마’를 정책의 신속도 내실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현재 전국의 129개 신청 마을 중 우리 도에서 24곳이 참여한 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재생에너지 생

산이 주민들의 지갑을 채우는 주민참여형 수익모델로 확실하게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는 결국 도민들이 일상에서 삶의 변화를 얼마나 직접 체감하는가에 달려있다”며, “도민주권을 도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공직사회가 먼저 관행을 혁신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함께 전북의 위대한 대도약을 반드시 이루내겠다”고 강조했다. /1만호 기자

‘국가 대도약에 전북은 없었다’

도의회,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에 유감 표명
“균형발전, 전북 제외하고는 결코 완성될 수 없어
힘 모아 실질적 투자계획 반영토록 역량 집중”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희수) 의원 44명은 3일 제4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친 뒤, 지난날 29일 발표된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희수 의장은 “전북은 RE100을 선도할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충분한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발표한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에서 전북이 사실상 배제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어긋나고 선연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구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은 균형발전이며, 균형발전은 전북을 제외하고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며 “메가프로젝트 세부 계획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전북에도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포함됐지만 전북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만호 기자

“전북 미래 산업지도 대전환 선도”

강태창 도의원, 제13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선출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를 이끌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선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의회의 전반적인 살림살이와 의정활동의 방향을 조율할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강태창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강태창 의회운영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제13대 의회가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전환기에 의회운영위원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언제나 도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의회 운영의 대원칙으로 ‘소통과 협력’을 제시하며, 정당을 초월해 선배·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정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매서운 감시와 견제를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1만호 기자

도, 국가예산 확보 ·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 6~10일 도정 핵심 현안 공개
- 새만금 농업연구센터 개소식
-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기공
- KB금융타운 개소식 등 예정
- 반도체 소재 생산 한솔케미칼
- 원주 산단 증설 협약 체결도



올해부터는 기존 개인 중심의 시상에서 벗어나 기관과 법인 단체까지 특별공로 상 수상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전북도의회 제안

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더욱 폭넓은 지역사회 공헌을 발굴한다는 취지다.

7일에는 예수병원에서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기공식이 개최된다. 총사업비 764억원이 투입되는 이 병원은 장애인치료와 중증질환자의 전문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권역 거점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7개 권역 통합재활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도 역시 의료 공공성 강화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8일에는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KB금융타운 개소식과 기업 투자협약이 예정돼 있으며, 9일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 27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어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정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10일에는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인 (주)한솔케미칼의 원주 산단단지 증설 투자협약이 체결된다. 약 1,010억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은 생산시설 확대를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군산에서는 ‘군산 오션 파레트’ 개장식도 열린다. 총사업비 387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2018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고용위기를

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관광인프라 사업으로, 전북 지역 최초의 대형 워터 레저 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후에는 도청 상황실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도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11일에는 어린이장의체협관에서 인구의 날 문화 행사가 열려 가족 참여 프로그램과 태권도 시범, 어린이 합창 공연 등이 진행되며, 12일에는 군산에서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 기념 추모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계절별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장마철을 앞두고 가축 분뇨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하계 휴가철 공중화장실 위생 관리와 편의시설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소방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맵핑 사업 사업을 통해 화재 대응과 실종자 수색 능력을 높이고, 서울 전통주 갤러리에서는 전북 대표 전통주 홍보전과 무료 시음 행사를 열어 지역 농식품의 경쟁력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동차 대체 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와 통합 돌봄 정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 등 산업과 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전북도는 이번주에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간다. 이원택 도지사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국제행사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의지를 확인한 계획이다. 이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다. /1만호 기자



전반기 도의회 대변인

부대변인 각각 임명

대변인 - 진형석 의원

부대변인 - 박병철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지난 3일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대변인 진형석 의원(전주·더불어민주당)을, 부대변인에 박병철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임명했다. 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13대 도의회 출범에 맞춰 부대변인 체제를 새로 도입했으며, 임명식에서 이 같은 취지를 밝혔다.

김희수 의장은 이날 오전 의정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앞으로 의정 주요 시안에 대한 일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도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 가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진형석 대변인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정화하고 투명하게 알리며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철 부대변인은 “대변인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장과 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박 부대변인은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역자부 의장과 NH농협은행 지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변인·부대변인 임기는 2028년 6월까지다. /1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예산 확보와 신성장 산업 육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6~10일 도정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철규 전북자치도 대변인(시진)은 지난 3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7월 둘째 주 주요 도정 일정과 핵심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반영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7월은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반영과 국제행사 심의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일정들이 집중돼 있다”며 “모든 현안을 심도 있게 추진해 도정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6일에는 새만금 간척지 농업연구센터 개소식이 열린다. 총사업비 약 200억 원의 규모가 투입된 이 연구센터는 새만금 농생명 융지에 조성돼 미래 농업기술 개발과 첨단 농업 연구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같은 날 제86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후보자 접수도 시작된다.

전북자치도, 휴가철 불법 숙박업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 이용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불법 숙박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숙박 수요 증가

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 등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14개 시·군의 민원 제보와 공유숙박 플랫폼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숙박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선별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미신고 숙박업소, 아파트·주택 등 숙박업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의 불법 숙박 영업 등이다. /1만호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구성... 위원장에 한정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정수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을 제13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한정수 의원(익산)을, 부위원장에 장정복 의원(장수)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제13대 제1기 예결위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정수 위원장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인문소방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정책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기획국을 맡아 정책기획과 지방행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아왔다.

예결위는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사하며 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정수 예결위원장(익산)은 “민선9기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도의회 윤리특위 구성... 위원장에 임승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승식 의원(정읍)을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이인숙 의원(국민·의정,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도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를 비롯해 행동강령 위반 징계 및 자리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승식 위원장은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윤리적 기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의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품격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